

사무엘하

- 1 사울의 죽은 후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와서 시글락에서 이틀을 유하더니
- 2 제 삼일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집에서 나왔는데 그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저가 다윗에게 나아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 3 다윗이 저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대답하되 '이스라엘 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 4 다윗이 가로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고하라' 저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서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중에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 5 다윗이 자기에게 고하는 소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 6 그에게 고하는 소년이 가로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산에 올라 보니 사울이 자기 창을 의지하였고 병거와 기병은 저를 추급히 따르는데
- 7 사울이 뒤로 돌아켜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 8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 9 또 내게 이르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에 들었나니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 10 저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 곁에 서서 죽이고 그 머리에 있는 면류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 왔나이다'
- 11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매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 12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을 인하여 저녁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 13 다윗이 그 고한 소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14 다윗이 저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
의 기름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15 소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저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16 다윗이 저에게 이르기를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지어
다 네 입이 네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여호와와 기름 부
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17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
고

18 명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도

19 이스라엘아! 너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용사가 엎드러졌도다

20 이 일을 가드에도 고하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
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레받
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21 길보아산들아 너희 위에 우로가 내리지 아니하며 제물
낼 말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
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음 같이 됨이로다

22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물러
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
도다

23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저희는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24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저가 붉
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노리개를 너희 옷
에 채웠도다

25 오호라! 두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너
의 산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26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도다

27 오호라! 두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병기가 망하였
도다 하였더라

2

1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2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3 또 자기와 함께한 종자들과 그들의 권속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에 거하게 하니라

4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5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가로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6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7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저희의 왕을 삼았음이니라'

8 사울의 군장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9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더라

10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비로소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 사십세며 두 해 동안 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11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 수는 일곱해 여섯달이더라

12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서 기브온에 이르고

13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서 기브온 못가에서 저희를 만나 앓으니 이는 못 이편이요, 저는 못 저편이라

14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청컨대 소년들로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장난하게 하자' 요압이 가로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15 저희가 일어나 그 수효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열 둘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열 둘이라

16 각기 적수의 머리를 잡고 칼로 적수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 곳을 헬갓하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17 그 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18 그 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19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20 아브넬이 뒤를 돌아 보며 가로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내로라'

21 아브넬이 저에게 이르되 '너는 좌편으로나 우편으로나 치우쳐서 소년 하나를 잡아 그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치우치기를 원치 않고 그 뒤를 쫓으매

22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네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23 저가 치우치기를 싫어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 배를 찌르니 창이 그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 곳에 엎드려져 죽으매 아사헬의 엎드려져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24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 가기가 맞은편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25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떼를 이루고 작은 산꼭대기에 섰더라

26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가로되 '칼이 영영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나 무리에게 그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하겠느냐?'

27 요압이 가로되 '하나님이 사시거니와 네가 혼단의 말을 내지 아니하였더라면 무리가 아침에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28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29 아브넬과 그 종자들이 밤새도록 행하여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30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서 무리를 다 모으
 니 다윗의 신복 중에 십 구인과 아사헬이 꺾이 났으나
 31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
 서 삼백 육십명을 죽였더라
 32 무리가 아사헬을 베들레헴에 있는 그 아비 묘에 장사하
 고 요압과 그 종자들이 밤새도록 행하여 헤브론에 이를 때
 에 날이 밝았더라

3

1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2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
 라 이스르엘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3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
 일의 소생이요 세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매의 딸 마아
 가의 아들이요
 4 네째는 아도니야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5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6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
 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7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
 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
 지의 첩을 통간하였느냐?'
 8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히 여겨 가로되 '내가
 유다의 개 대강이뇨 내가 오늘날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
 과 그 형제와 그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날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9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아니하
 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
 라
 10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 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11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 말도 대답지 못하니라

12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사자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가로되 '이 땅이 다투는 것이니이까' 또 가로되 '당신은 나로 더 붙여 언약하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로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13 다윗이 가로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하려니와 내가 네게 한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위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렇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14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저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양피 일백으로 정혼한 자니라'

15 이스보셋이 보내어 그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취하매

16 그 남편이 저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 왔더니 아브넬이 저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17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러번 다윗으로 너희 임금 삼기를 구하였으니

18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19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히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고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20 아브넬이 종자 이십인으로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 함께 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21 아브넬이 다윗에게 고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하게 하고 마음의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저가 평안히 가니라

22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략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23 요압과 그 함께 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호이 요압에게 고하여 가로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

내매 저가 평안히 갔나이다'

24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가로되 '어찌 하심이니이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저를 보내어 잘 가게 하셨나이까?

25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의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왕의 출입하는 것을 알고 모든 하시는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26 이에 다윗에게서 나와서 사자들을 보내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저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27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저를 데리고 성문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배를 찢어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를 인함이라

28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29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 아비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문둥병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핍절한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30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저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31 다윗이 요압과 밋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베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통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 가서

32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33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가로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34 네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려 집 같이 네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35 석양에 못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것을 맛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36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37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의 한 바가 아닌 줄을 아니라
 38 왕이 그 시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방백이요 또
 는 대인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39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날 악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
 라

4

1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
 을 듣고 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2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장 두 사람이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바아나요, 하나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
 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3 일찍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
 기 우거함이라
 4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절뚝발이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
 림은 므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은 소식이 이
 스르엘에서 올 때에 그 나이 다섯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
 고 도망하더니 급히 도망하므로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
 더라
 5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아나가 행하여 별이 쫓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저가 낮잠을 자는
 지라
 6 레갑과 그 형제 바아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
 데로 들어가서 그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7 저희가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상 위에 누웠
 는지라 저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
 록 아라바 길로 행하여
 8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며
 고하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
 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9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 형제 바아나에
 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10 전에 사람이 내게 고하기를 사울이 죽었다 하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저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으로 그 기별의 갇음을 삼았거든
 11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저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12 소년들을 명하매 곧 저희를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어 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장사하였더라

5

1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와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골육이니이다'
 2 전일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는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3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라
 4 다윗이 삼십세에 위에 나아가서 사십년을 다스렸으니
 5 헤브론에서 칠년 육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삼십 삼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6 왕과 그 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거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 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이리로 들어 오지 못하리라'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저희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7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8 그 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수구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절뚝발이와 소경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소경과 절뚝발이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9 다윗이 그 산성에 거하여 다윗 성이라 이름하고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10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11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저희가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12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아니라

13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취하였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14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밍과, 나단과, 솔로몬과,

15 입할과, 엘리수아와, 네벵과, 야비아와,

16 엘리사마와, 엘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17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해처로 나가니라

18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19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20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저희를 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물을 흠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흘으셨다 하므로 그 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칭하니라

21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 종자들이 치우니라

22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23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대 가라사대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수풀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24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하라 그 때에 여호와가 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25 이에 다윗이 여호와와 명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6

1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삼만을 다시 모으고

2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와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3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4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행하고

5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6 저희가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7 여호와와 하나님이 웃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8 여호와께서 웃사를 충돌하시므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웃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9 다윗이 그 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와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10 여호와와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벰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11 여호와와 궤가 가드 사람 오벰에돔의 집에 석달을 있었는데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12 후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벰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벰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13 여호와와 궤를 멘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행하매 다윗이 소와 살진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14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베 에봇을 입었더라

15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와 궤를 메어 오니라

16 여호와와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17 여호와와 그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예비한 자리에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18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19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의 무론 남녀하고 떡 한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덩이씩 나눠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20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없이 자기의 몸 드러내느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21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네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와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22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23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7

1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2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3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4 그 밤에 여호와와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5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와 말씀이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6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7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8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9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10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자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11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12 네 수한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13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14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15 내가 네 앞에서 폐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16 네 집과 네 나라가 네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네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17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고하니라

18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관대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19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영구히 이를 일을 말씀하실 뿐 아니라 주 여호와여 인가의 규례대로 하셨나이까

20 주 여호와는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21 주의 말씀을 인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까

22 여호와 하나님이며 이러므로 주는 광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 신이 없음이니이다!

23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저희를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열국과 그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24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25 여호와 하나님이며,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확실케 하옵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26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으로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27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며,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시고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28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허락하셨사오니

29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8

1 이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 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덱암마를 빼앗으니라

2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저희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3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저를 쳐서

4 그 마병 일천 칠백과 보병 이만을 사로잡고 병거 일백승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5 다메섹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이만 이천을 죽이고
 6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7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의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
 살렘으로 가져오고
 8 또 하닷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대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9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파하
 였다 함을 듣고
 10 그 아들 요람을 보내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로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
 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파함이라 요람이 은 그릇과 금 그릇
 과 놋 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11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저가 정복한 모든 나
 라에서 얻은 은금
 12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
 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략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13 다윗이 염곡(鹽谷)에서 에돔 사람 일만 팔천을 쳐 죽이
 고 돌아와서 명예를 얻으니라
 14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15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할새
 16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장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17 아히둡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
 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18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
 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이 되니라

9

1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

니라

2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저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저에게 묻되 '네가 시바냐?' 가로되 '종이 그로소이다'

3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이니이다'

4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5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6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아와서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므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7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조부 사울의 발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8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관대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9 왕이 사울의 사환 시바를 불러서 이르되 '사울과 그 온 집 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10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저를 위하여 발을 갈고 거두어 네 주인의 아들을 공궤하라 그러나 네 주인의 아들 므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열 다섯이요 종이 스물이라

11 시바가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온갖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므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12 므비보셋에게 젊은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무릇 시바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므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13 므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는 두 발이 다 절뚝이더라

10

1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2 다윗이 가로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 아비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같이 하리라' 하고 그

신복들을 명하여 '그 아비 죽은 것을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복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3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그 주 하눈에게 고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 신복을 보내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이까?'

4 이에 하눈이 다윗의 신복들을 잡아 그 수염 절반을 깎고 그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5 후이 이 일을 다윗에게 고하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저희를 맞으러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기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6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사람을 보내어 벵르훅 아람 사람과 소바아람 사람의 보병 이만과 마아가 왕과 그 사람 일천과 돕 사람 일만 이천을 고용한지라

7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8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훅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9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뺨 자 중에서 또 빼서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치고

10 그 남은 무리는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붙여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치게 하고

11 가로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12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을 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13 요압과 그 종자가 아람 사람을 향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저희가 그 앞에서 도망하고

14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의 도망함을 보고 저희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15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이매

16 하닷에셀이 사람을 보내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 내매 저희가 헬람에 이르니 하닷에셀의 군대 장관 소박이 저희를 거느린지라

17 후이 다윗에게 고하매 저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

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18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칠백승의 사람과 마병 사만을 죽이고 또 그 군대 장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19 하닷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이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11

1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2 저녁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 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답다와 보이는지라
 3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 밋세바가 아니이까?'
 4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 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케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5 여인이 잉태하매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하니라
 6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헷 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7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의 어떠한 것을 묻고
 8 저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식물이 뒤따라가니라
 9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 주의 신복들로 더불어 잔지라
 10 후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우리아가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가 길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네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11 우리아가 다윗에게 고하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채 가운데 유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들에 유진하였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12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 날에 예루살렘에 유하니라 이튿날

13 다윗이 저를 불러서 저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저가 나가서 그 주의 신복으로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14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부쳐 요압에게 보내니

15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16 요압이 그 성을 살피 용사들의 있는 줄을 아는 그 곳에 우리아를 두니

17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으로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신복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헛 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18 요압이 보내어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고할새

19 그 사자에게 명하여 가로되 '전쟁의 모든 일을 네가 왕께 고하기를 마친 후에

20 혹시 왕이 노하여 네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이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저희가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21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썩을 그 위에 던지매 저가 데벳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왕의 종 헛 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22 사자가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의 모든 보낸 일을 고하여

23 가로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승하여 우리를 향하여들로 나온고로 우리가 저희를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24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신복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신복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헛 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25 다윗이 사자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이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저를 담대케 하라' 하니라
 26 우리아의 처가 그 남편 우리아의 죽었음을 듣고 호곡하니라
 27 그 장사를 마치매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 오니 저가 그 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12

1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2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3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 누우므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4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5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 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6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사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7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네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8 네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네 주인의 처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 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9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 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헛 사람 우리아를 죽이

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처를 빼앗아 네 처를 삼았도
다

10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헛 사람 우리아의 처를 빼앗
아 네 처를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 영영히 떠나지 아니하리
라 하셨고

11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네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네 처들을 가져 네 눈 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네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12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13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
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
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14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와 원수로 크게 훼방할 거리를 얻
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녕 죽으리이다' 하고

15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
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시매 심히 앓는 지라

16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17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곁에 이르러 다윗을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저희로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18 이레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복들이
아이의 죽은 것을 왕에게 고하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저희
가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의 죽은 것을 고할
수 있으랴 왕이 휘상하시리로다' 함이라

19 다윗이 그 신복들의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
가 죽은 줄을 깨닫고 그 신복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20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와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와
서 명하여 음식을 그 앞에 베풀게 하고 먹은지라

21 신복들이 왕께 묻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위하여 금식
하고 우시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어찌이니이까
'

22 가로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는지 누
가 알까 생각함이어니와

23 시방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라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24 다윗이 그 처 밧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으매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25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더라

26 요압이 암몬 자손의 왕성(王城) 랍바를 쳐서 취하게 되매

27 사자를 다윗에게 보내어 가로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을 쳐서 취하게 되었으니

28 이제 왕은 남은 군사를 모아 진치고 이 성을 쳐서 취하소서! 내가 이 성을 취하면 이 성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 하나이다'

29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쳐서 취하고

30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면류관을 취하니 그 중량이 한 금 달란트라 다윗이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어오고

31 그 가운데 백성들을 끌어 내어 톱질과, 씨레질과, 도끼질과, 벽돌구이를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13

1 그 후에 이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아들 암논이 저를 연애하나

2 저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 누이 다말을 인하여 심화로 병이 되니라

3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저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자라

4 저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뇨 내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뇨?'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연애함이니라'

5 요나답이 저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체하다가 네 부친이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말하기를 청컨대 내 누이 다

말로 와서 내게 식물을 먹이되 나 보는데서 식물을 차려 그 손으로 먹여 주게 하옵소서 하라'

6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하다가 왕이 와서 저를 볼 때에 왕께 고하되 '청컨대 내 누이 다말로 와서 내가 보는데서 과자 두어개를 만들어 그 손으로 내게 먹여 주게 하옵소서'

7 다윗이 사람을 그 집으로 보내어 다말에게 이르되 '네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가서 저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8 다말이 그 오라비 암논의 집에 이르매 암논이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9 그 남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싫어하고 가로되 '모든 사람을 나가게 하라' 하니 다 저를 떠나 나가니라

10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네 손에서 먹으리라' 다말이 자기의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 오라비 암논에게 이르러

11 저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12 저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비여 나를 욕되게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치 못할 것이니 이 괴악한 일을 행치 말라'

13 내가 이 수치를 무릅쓰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괴악한 자 중 하나가 되리라 청컨대 왕께 말하라 저가 나를 네게 주기를 거절치 아니하시리라' 하되

14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동침하니라

15 그리하고 암논이 저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이왕 연애하던 연애보다 더한지라 곧 저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16 다말이 가로되 '가치 아니하다 나를 쫓아 보내는 이 큰 악은 아가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듣지 아니하고

17 그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어보내고 곧 문빋장을 지르라' 하니

18 암논의 하인이 저를 끌어내고 곧 문빋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19 다말이 재를 그 머리에 무릅쓰고 그 채색옷을 찢고 손을
 머리위에 얹고 크게 울며 가니라
 20 그 오라비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되 '네 오라비 암논이 너
 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저는 네 오라비니 누이야 시방
 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인하여 근심하지 말라' 이에 다말
 이 그 오라비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21 다윗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22 압살롬이 그 누이 다말을 암논이 욕되게 하였으므로 저
 를 미워하여 시비간에 말하지 아니하니라
 23 이 주년 후에 에브라임 결 바알하솔에서 압살롬의 양털
 을 깎는 일이 있으매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24 왕께 나아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
 니 청컨대 왕은 신복들을 데리시고 이 종과 함께 가사이다'
 25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이 우리가 다 갈
 것이 없다 네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압살롬이 간청하되 저
 가 가지 아니하고 위하여 복을 비는지라
 26 압살롬이 가로되 '그렇게 아니하시려거든 청컨대 내 형
 암논으로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저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27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저와
 함께 보내니라
 28 압살롬이 이미 그 사환들에게 분부하여 이르기를 '너희
 는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저를 죽이라 두려워 말라 내
 가 너희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맹을 내
 라' 한지라
 29 압살롬의 사환들이 그 분부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30 저희가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죽이
 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31 왕이 곧 일어나서 그 옷을 찢고 땅에 엎드러지고 그 신복
 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32 다윗의 형 시므야의 아들 요나답이 고하여 가로되 '내 주
 여 소년의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지 마옵소서 오
 지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저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
 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33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
 여 괘념(掛念)하지 마옵소서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34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소년이 눈을 들어
 보니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더라
 35 요나답이 왕께 고하되 '왕자들이 오나이다 종의 말한대
 로 되었나이다'
 36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대성통곡하니 왕과 그 모
 든 신복도 심히 통곡하니라
 37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 왕 암미홀의 아들 달매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 아들을 인하여 슬퍼하니라
 38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한지 삼년이라
 39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다라

14

1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2 드고아에 보내어 거기서 슬기있는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이르되 청컨대 너는 상주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
 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 같이 하
 고
 3 왕께 들어가서 여차여차히 말하라'고 할 말을 그 입에 넣
 어주니라
 4 드고아 여인이 왕께 고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가로되 왕이여! 도우소서
 5 왕이 저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나?' 대답하되 '나는 참 과
 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6 아들 둘이 있더니 저희가 들에서 싸우나 말려 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저가 이를 쳐 죽인지라
 7 온 족속이 일어나서 왕의 계집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 동생을 죽인 자를 내어 놓으라 우리가 그 동생 죽인 죄를
 갚아 저를 죽여 사자 될것까지 꿈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저희가 내게 남아 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끼쳐두지 아니하겠나이다'
 8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9 드고아 여인이 왕께 고하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비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
 이다'

10 왕이 가로되 '누구든지 네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 오라 저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11 여인이 가로되 '청컨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생각하사 원수 갚는 자로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려워 하나이다' 왕이 가로되 '여호와와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12 여인이 가로되 '청컨대 계집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으로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가로되 '말하라'

13 여인이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같은 도모를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셨으니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 같이 되심은 그 내어쫓긴 자를 집으로 돌아오게 아니하심이니이다'

14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모으지 못함 같은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어쫓긴 자로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시나이다'

15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계집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쭙면 혹시 종의 청하는 것을 시행하실 것이라'

16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산에 서 곁을 자의 손에서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17 계집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컨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18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네게 묻는 것을 숨기지 말라' 여인이 가로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19 왕이 가로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여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 왕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옵나니 무릇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니이다' 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하였고 저가 이 모든 말을 왕의 계집종의 입에 넣어주었사오니'

20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변하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21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소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22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가로
 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받은 줄을 오늘날 아나이다' 하고
 23 일어나 그 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24 왕이 가로되 '저를 그 집으로 몰러가게 하고 내 얼굴을 보
 지 말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25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
 찬 받는 자가 없었으니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음이라
 26 그 머리털이 무거우므로 년마다 깎았으며 그 머리털
 을 깎을 때에 달아보즉 왕의 저울로 이백 세겔이었더라
 27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
 말이라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28 압살롬이 이태 동안을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29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사람을 보내어 부르되 오지 아
 니하고 또 다시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30 압살롬이 그 종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발이 내 발 근
 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놓으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발에 불을 놓았더니
 31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와서 압살롬에게 이르
 되 '어찌하여 네 종들이 내 발에 불을 놓았느냐?'
 32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 사람을 보내어
 너를 이리로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어 고하게 하기
 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
 지 거기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함이로다 이제
 는 네가 나로 왕의 얼굴을 보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가하니라'
 33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 말을 고하매 왕이 압살롬을 부
 르니 저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15

1 이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전배(前倍) 오십명을 세우니라
 2 압살롬이 일찌기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
 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

러서 이르되 '너는 어느 성 사람이냐'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3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기를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네 송사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4 또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 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공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5 사람이 가까이 와서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입을 맞추니

6 무릇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이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하니라

7 사년만에 압살롬이 왕께 고하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컨대 나로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8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9 왕이 저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저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10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소리를 듣거든 곧 부르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11 그 때에 압살롬에게 청함을 받은 이백명이 그 사기를 알지 못하고 아무 뜻 없이 예루살렘에서 저와 함께 갔으며

12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 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13 사자가 다윗에게 와서 고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14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한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저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서 해하고 칼로 성을 칠까 하노라'

15 왕의 신복들이 왕께 고하되 '우리 주 왕의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하더라

16 왕이 나갈 때에 권속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열명을 남겨 두어 궁을 지키게 하니라

17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메르학에 이르러 머무니

18 모든 신복이 그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육백인이 왕의 앞으로 진행하니라

19 그 때에 왕이 가드 사람 잇대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20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날 어찌 너로 우리와 함께 유리하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네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21 잇대가 왕께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와 사십과 우리 주 왕의 사십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는지 무론 사색하고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22 다윗이 잇대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잇대와 그 종자들과 그와 함께 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23 온 땅 사람이 대성통곡하며 모든 인민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24 사독과 그와 함께 한 모든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더니

25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26 그러나 저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 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27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네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네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으로 돌아가라

28 너희에게서 내게 고하는 기별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룻터에서 기다리리라'

29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유하니라

30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31 혹은 다윗에게 고하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32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새가 옷을 찢고 흠을 머리에 무릅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33 다윗이 저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34 그러나 네가 만일 성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이왕에는 왕의 부친의 종이었더니 내가 이제는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35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네가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고하라

36 저희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저희와 함께 거기 있나니 무릇 너희 듣는 것을 저희 편으로 내게 기별할지니라'

37 다윗의 친구 후새가 곧 성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16

1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므비보셋의 사환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이백과, 건포도 일백 송이와, 여름 실과 일백과,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2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 왔느냐?' 시바가 가로되 '나귀는 왕의 권속들로 타게 하고 떡과 실과는 소년들로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곤비한 자들로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3 왕이 가로되 '네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께 고하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저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4 왕이 시바더러 이르되 '므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니라' 시바가 가로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나로 왕의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5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매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6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 때에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7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8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고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9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10 왕이 가로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11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12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13 다윗과 그 종자들이 길을 갈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저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리더라

14 왕과 그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곤비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15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저와 함께 이른지라

16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새가 압살롬에게 나아올 때에 저에게 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17 압살롬이 후새에게 이르되 '이것이 네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네가 어찌하여 네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

느냐?’

18 후새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거할 것이니이다’

19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 아들이 아니니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20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모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21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머물러 두어 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부친의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22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지붕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부친의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니라

23 그 때에 아히도벨의 베푸는 모략은 하나님께 물어 받은 말씀과 일반이라 저의 모든 모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이와 같더라

17

1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나로 하여금 사람 일만 이천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따라’

2 저가 곤하고 약할 때에 엄습하여 저를 무섭게 한즉 저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3 모든 백성으로 왕께 돌아오게 하리니 무리의 돌아오기는 왕의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4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5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새도 부르라 우리가 저의 말도 듣자’ 하니라

6 후새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저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히도벨이 여차여차히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라 그렇지 않거든 너는 말하라

7 후새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 때에는 아히도벨의 베푼 모략이 선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8 또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부친과 그 종자들은 용사라 저희는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병법에 익은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9 이제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엿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좇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10 비록 용감하여 사자 같은 자의 마음이라도 저상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부친은 영웅이요 그 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고이니이다

11 나의 모략은 이러하니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왕께로 모으고 친히 천장에 나가시고

12 우리가 그 만날만한 곳에서 저를 엄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 같이 저의 위에 덮여 저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13 또 만일 저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한 작은 돌도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14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새의 모략은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 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음이라

15 이에 후새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여차여차히 모략을 베푼었고 나도 여차여차히 모략을 베푼었으니

16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룻터에서 자지 마시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 좇는 자들이 물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17 그 때에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여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스로겔 가에 머물고 어떻게 계집종은 저희에게 나와서 고하고 저희는 가서 다윗에게 고하더니

18 한 소년이 저희를 보고 압살롬에게 고한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 들에 있는 우물속으로 내려가니

19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구를 덮고 찜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도무지 알지 못할러라
 20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하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여인이 가로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저희가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21 저희가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여차여차히 모략을 베풀었나이다'

22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너새 새벽에 미쳐서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23 아히도벨이 자기 모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으매 그 아비 묘에 장사되니라

24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25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장(軍長)을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저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더라

26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 치니라

27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랍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실래가

28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볍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볍은 녹두와,

29 꿀과, 빼더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 함께 한 백성으로 먹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18

1 이에 다윗이 그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고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 위에 세우고

2 그 백성을 내어 보낼새 삼분지 일은 요압의 수하에, 삼분지 일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수하에 붙이

고, 삼분지 일은 가드 사람 잇대의 수하에 붙이고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3 백성들이 가로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저희는 우리에게 주의하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의하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좋하시오니 왕은 성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4 왕이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가 선히 여기는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서매 모든 백성이 백명씩 천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5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잇대에게 명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장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6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7 거기서 이스라엘 무리가 다윗의 심복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살육이 커서 이만에 이르렀고

8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 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9 압살롬이 다윗의 심복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털이 그 상수리나무에 걸리매 저가 공중에 달리고 그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 나간지라

10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더이다'

11 요압이 그 고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열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12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천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잇대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소년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13 아무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 생명을 해하였다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14 요압이 가로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

아 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15 요압의 병기를 맡은 소년 열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죽이니라

16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로 그치게 하니 저희가 이스라엘을 따르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17 무리가 압살롬을 옮겨다가 수풀 가운데 큰 구멍에 던지고 그 위에 심히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18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가져 세웠으니 이는 저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음을 한탄함이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으로 그 비석을 이름하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19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 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20 요압이 저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네가 오늘날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21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본 것을 왕께 고하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달음질하여 가니

22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컨대 아무쪼록 나로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음질하게 하소서' 요압이 가로되 '내 아들이 왜 달음질하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인하여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23 저가 아무쪼록 달음질하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가로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달음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서니라

24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았더라 파숫군이 성문루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음질하는지라

25 파숫군이 외쳐 왕께 고하매 왕이 가로되 '저가 만일 혼자면 그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저가 차차 가까이 오니라

26 파숫군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음질하는지라 문지기에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음질한다' 하니 왕이 가로되 '저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27 파숫군이 가로되 '나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달음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달음질과 같으니이다' 왕이 가로되 '저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 오느니라'

28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말씀하되 '평안하옵소서!' 하고 왕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여 가로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붙여 주셨나이다'

29 왕이 가로되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니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30 왕이 가로되 '물러나 곁에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섰더라

31 구스 사람이 이르러 고하되 '내 주 왕께 보(報)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32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소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33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루로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19

1 혹이 요압에게 고하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2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 날에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 날의 이김이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3 그 날에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으로 들어가니라

4 왕이 얼굴을 가리우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5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하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신복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6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장관들과 신복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

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더라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7 이제 곧 일어나 나가서 왕의 신복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 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8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으매 흑이 모든 백성에게 고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시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창막으로 도망하였더라

9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가로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나라에서 나가셨고

10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 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11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12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골육이어늘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 오는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13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대신하여 항상 내 앞에서 군장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14 모든 유다 사람들로 마음을 일제히 돌리게 하매 저희가 왕께 보내어 가로되 '왕은 모든 신복으로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15 왕이 돌아와 요단애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려 하여 길갈로 오니라

16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려 내려올 때에

17 베냐민 사람 일천명이 저와 함께 하고 사울의 사환 시바도 그 아들 열 다섯과 종 스무명으로 더불어 저와 함께 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의 앞으로 나아오니라

18 왕의 가족을 건네려 하며 왕의 선히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가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려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의 앞에 엎드려

19 왕께 고하되 '내 주여! 원컨대 내게 죄 주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시며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20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는 고로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21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가로되 '시므이가 여호와와 기쁨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인하여 죽어야 마땅치 아니하니이까?'

22 다윗이 가로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있기로 너희가 오늘 나의 대적이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23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저에게 맹세하니라

24 사울의 손자 므비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으니 저는 왕의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 발을 맴시내지 아니하며 그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25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저에게 물어 가로되 '므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뇨'

26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 나는 절뚝발이이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워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나의 종들이 나를 죽이고'

27 종 나를 내 주 왕께 참소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28 내 아비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었나이가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오히려 무슨 흠음이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29 왕이 저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네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발을 나누라'

30 므비보셋이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저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31 길르앗 사람 바실래가 왕을 보내어 요단을 건네려고 로
 글림에서 내려와서 함께 요단에 이르니
 32 바실래는 매우 늙어 나이 팔십세라 저는 거부 인고로 왕
 이 마하나임에 유할 때에 왕을 공궤하였더라
 33 왕이 바실래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
 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궤하리라'
 34 바실래가 왕께 고하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삽관대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35 내 나이 이제 팔십세라 어떻게 좋고 흥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 들을 수 있사오리이
 까? 어찌하여 종이 내주 왕께 오히려 누를 끼치리이까?
 36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어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37 청컨대 종을 돌려 보내옵소서 내가 내 본성(本城) 부모
 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컨대 저로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옵시고
 왕의 처분대로 저에게 베푸소서'
 38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내가 너의
 종아하는 대로 저에게 베풀겠고 또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39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바실래의 입을
 맞추고 위하여 복을 비니 저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40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
 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을 호행하니라
 41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아와서 고하되 '우리 형제 유
 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적하여 왕과 왕의 권속과 왕을 쫓
 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네었나이까' 하매
 42 유다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
 리의 지친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일에 대하여 분내느
 냐 우리가 왕의 물건을 조금이라도 먹었느냐 왕께서 우리
 에게 선물을 주신 것이 있느냐'
 43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는 왕에게 대하여 십분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
 다 왕을 관계하는 것 같으니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 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

20

1 마침 거기 난류 하나가 있으니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 하는 자라 저가 나팔을 불며 가로되 '우리는 다윗과 함께할 분의가 없으며 이새의 아들과 함께 할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2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좇으나 유다 사람들은 왕에게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좇으니라

3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궁을 지키게 한 후궁 열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더붙어 동침치 아니하니 저희가 죽는 날까지 간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4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삼일 내로 유다 사람을 소집하고 너도 여기 있으라'

5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소집하러 가더니 왕의 정한 기한에 지체된지라

6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하리니 너는 네 왕의 신복들을 거느리고 쫓아가라 저가 견고한 성에 들어가서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7 요압을 좇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8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때에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매었는데 저가 행할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9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형은 평안하뇨'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 입을 맞추려는 체하매

10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치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 배를 찌르매 그 창자가 땅에 흐르니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을새

11 요압의 소년 중 하나가 아마사의 곁에 서서 가로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와 다윗을 위하는 자는 요압을 따르라' 할 때에

12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굴어졌는지라 그 소년이 모든 백성의 섰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13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아가니라

14 요압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행하여 아벨과 벨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저를 따르더라

15 이에 저희가 벨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에우고 그 성읍을 향하여 해자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16 그 성에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가 외쳐 가로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컨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려 하노라 한다' 하라

17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가로되 '당신이 요압이니이까?' 대답하되 '그러하다' 여인이 저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18 여인이 말하여 가로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19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여늘 당신은 이스라엘 가운데 어미 같은 성읍을 멸하고자 하시는데도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와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20 요압이 대답하여 가로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함이 아니니

21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저만 내어 주면 내가 이 성읍에서 떠나가리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저의 머리를 성읍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22 이에 여인이 그 지혜로 모든 백성에게 말하매 저희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서 각 기창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에게 나아가니라

23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장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장관이 되고

24 아도니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25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26 야일 사람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21

1 다윗의 시대에 년부년 삼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2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저희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이 있었으므로 저희 죽이기를 꾀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물으니라

3 다윗이 저희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와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4 기브온 사람이 대답하되 '사울과 그 집과 우리 사이의 일은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나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일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의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5 저희가 왕께 고하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경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6 자손 일곱을 내어 주소서 여호와와 빠신 사울의 고을 기브온에서 우리가 저희를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왕이 가로되 '내가 내어 주리라' 하니라

7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은 아끼고

8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므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므홀랏 사람 바실래의 아들 아드리엘의 다섯 아들을 잡고

9 저희를 기브온 사람의 손에 붙이니 기브온 사람이 저희를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저희 일곱 사람이 함께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처음날 곧 보리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10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베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반석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11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의 행한 일이 다윗에게
 들리매
 12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취하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벧산 거리에 매어 단 것을 저희가 가만히
 가져 온 것이라
 13 다윗이 그 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
 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
 다
 14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 아비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대로 좇아 행하
 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니
 라
 15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 신복
 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
 하매
 16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삼백세겔 중 되는 놋창을 들고 새
 칼을 찬 이스비브넛이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17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다윗의 종자들이 다윗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왕
 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18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
 람 십브개가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19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
 람 아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
 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 자루는 베들채 같았더라
 20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매(每)
 손과 매(每)발에 가락이 여섯씩 모두 스물 네 가락이 있는
 데 저도 장대한 자의 소생이라
 21 저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하므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
 들 요나단이 저를 죽이니라
 22 이 네 사람 가드의 장대한 자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 신
 복의 손에 다 죽었더라

22

1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

하신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2 가로되 여호와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3 나의 하나님이지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지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
 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4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
 원을 얻으리로다

5 사망의 물결이 나를 에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6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7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
 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여 나의 부르짖음
 이 그 귀에 들렸도다

8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
 니 그의 진노를 인함으로다

9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쏘이 피었도다

10 저가 또 하늘을 드리우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는 어둑
 캄캄하도다

11 그룹을 타고 날으심이여!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12 저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의 뻥뻥한 구름으로 둘러친 장
 막을 삼으심이여!

13 그 앞에 있는 광채로 인하여 솟불이 피었도다

14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뇌성을 발하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심이여!

15 살을 날려 저희를 홀으시며 번개로 파하셨도다

16 이럴 때에 여호와와 꾸지람과 콧김을 인하여 물 밑이 드
 러나고 땅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17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심이여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18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음이여! 저
 희는 나보다 힘센 연고로다

19 저희가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20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므로 구
 원하셨도다

21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좇아
 22 깊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와 의도를 지키고 악을 행하여 내 하나님
 23 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규례를 내 앞에 두고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
 24 음이로다 내가 또 그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
 25 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 목전에 내 깨끗한 대
 26 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27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
 28 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29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흑암
 30 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
 31 고 성벽을 뛰어 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와 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
 32 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바
 33 위노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온전한 곳으로 인
 34 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
 35 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낫활을 당기도다
 36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
 37 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로 실족지 않게 하셨나이다
 38 내가 내 원수를 따라 멸하였사오며 저희를 무찌르기 전
 39 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저희를 무찔러 파하였더니 저희가 내 발 아래 엎드
 40 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 띠우
 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케 하셨사오며

41 주께서 또 내 원수들로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로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42 저희가 둘러보아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
 짓어도 대답지 아니하셨나이다
 43 내가 저희를 땅의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의 진흙
 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44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
 하사 열방의 으뜸을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45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함이며! 저희가 내 풍성을 듣고 곧
 순복하리로다
 46 이방인들이 쇠미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어져 나오리로다
 47 여호와께는 생존하시니 나의 바위를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바위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48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수하시고 민족들로 내게 복
 종케 하시며
 49 나를 원수들에게서 나오게 하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
 에 나를 드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50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
 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51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심이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
 로다 하였더라

23

1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함이며
 높이 올린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
 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2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심이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3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
 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
 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4 저는 돌은 해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후의 광
 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 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5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갈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로 더
 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케 하셨

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6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어 버리울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7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사르이리로다 하니라

8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밧세벵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장의 두목이라 저가 한 때에 팔백인을 쳐 죽였더라

9 그 다음은 아호아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 한 세 용사 중에 하나이라 블레셋 사람이 싸우려고 모이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돋우고

10 저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칼에 불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서 저의 뒤를 따라가며 노략할 뿐이었더라

11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이 떼를 지어 녹두나무가 가득한 밭에 모이매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되

12 저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13 또 삼십 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떼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14 그 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의 영채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15 다윗이 사모하여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 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하매

16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 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17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니이다' 하고 마시기를 즐겨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18 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니 저는 그 삼인의 두목이라 저가 창을 들어 삼백인을 죽이고 그 삼인 중에 이

름을 얻었으니

19 저는 삼십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저가 저희의 두 목이 되었으나 그러나 첫 삼인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20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니 저는 효용한 일을 행한 자라 일찌기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한 사자를 죽였으며

21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저가 막대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22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23 삼십인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첫 삼인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저를 세워 시위대 장관을 삼았더라

24 요압의 아우 아사헬은 삼십인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25 하룻 사람 삼훗과, 하룻 사람 엘리가와

26 발디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익게스의 아들 이라와

27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므분내와

28 아호아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하래와

29 느도바 사람 바아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배의 아들 잇대와

30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아스 시넛가에 사는 히대와

31 아르바 사람 아비알본과, 바르훗 사람 아스마웁과

32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센의 아들 요나단과

33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히암과

34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배의 아들 엘리벨렛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35 갈멜 사람 헤스래와, 아랍 사람 바아래와

36 소바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와

37 암몬 사람 셀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병기 잡은 자 브에롯 사람 나하래와

38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39 헛 사람 우리아라 이상 도합이 삼십 칠인이었더라

24

1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2 왕이 이에 그 곁에 있는 군대 장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그 도수를 내게 알게 하라'

3 요압이 왕께 고하되 '이 백성은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백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4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장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장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의 앞에서 물러나서

5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우편 곧 야셀 맞은편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6 길르앗에 이르고 닛딤혹시 땅에 이르고 또 다나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서

7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편으로 나와서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8 저희 무리가 국중을 두루 돌아 아홉달 스무날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9 요압이 인구 도수를 왕께 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팔십만이요, 유다 사람이 오십만이었더라

10 다윗이 인구 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11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와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12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와 말씀에 내가 네게 세가지를 보이노니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13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왕의 땅에 칠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이까 혹시 왕이 왕의 대적에게 쫓겨 석달을 그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이까 혹시 왕의 땅에 삼일동안 온역이 있을 것이니이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하게 하소서'

14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
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와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
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15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온역을 이
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
가 칠만인이라

16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
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
에 여호와와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
에 있는지라

17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가
로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삽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18 이 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
소서' 하매

19 다윗이 여호와와 명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20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 신복들이 자기를 향하
여 몸을 보고 나가서 왕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21 가로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다
윗이 가로되 '네게서 타작 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로라'

22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고하되 '원컨대 내 주 왕은 좋게 여
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떨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제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
이다'

23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고하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
시기를 원하나이다'

24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은 오십 세겔로 타작 마당과 소를
사고

25 그 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
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한국어 성경

The Holy Bible in Korean, 1910 translation

Public Domain

Language: 한국인 (Korean)

Contributor: 레널즈, 이승두, 김정삼

2024-11-05

PDF generated using Haiola and XeLaTeX on 18 Apr 2025 from source files
dated 5 Nov 2024

7611292f-ab99-5de2-9efb-8422f9365905